

Development Centre Studies

The Visible Hand of China in Latin America

Summary in Korean

개발센터 연구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의 보이는 손

국어 개요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의 도움의 손?

Javier Santiso

중국의 경제호황은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중국은 지난 몇년 간 급성장을 이루면서 신흥경제시장에 기회와 위협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는 개발도상국에게 뜻밖의 기회요인이면서도 도전요소다.

중국 경기호황은 원자재를 보유하는 국가들의 무역수출을 활성화하는 뜻밖의 긍정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지만 중국의 원자재 수요는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국가 경우에 실제환율, 명목환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제조분야의 경쟁성을 저하하기도 한다. 아울러 중국은 노동집약적 및 저기술 품목에 이어 점점 지식집약적 및 고기술 품목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도국과 특히 멕시코 같은 우수한 세계무역국가들에게 섬유에서 대부분의 고부가가치 산업품목에 걸친 거의 모든 경제분야에서 도전요소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이 신규 세계경제주체를 과연 두려워해야 할까? 제 1 장에서 에두아르도 로라는 이 사안을 토대로 중국경제와 라틴아메리카경제의 강점을 각각 비교한다. 이 강점 요소로 경제규모, 거시경제안정 부문, 수많은 저렴한 노동력, 물적 시설의 급속 확장, 혁신 역량, 높은 투자율 및 저축률 등을 꼽는다. 이 핵심사안은 주요 국제기관과 학계에서 전문가와 학자들이 다루고도 있는데 예로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OECD 개발센터, 스페인중앙은행, 칠레중앙은행, 옥스퍼드대학, 아르헨티나의 BBVA 와 최고 유럽은행에 속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금융주체 역할을 하는 은행 등 일부 민간은행 등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 교역이 라틴아메리카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 호황을 통한 직접 영향과 교역조건 개선을 통한 간접 영향 등 대개 긍정적이다. 중국은 라틴아메리카 원자재의 대외 출구가 되면서 라틴아메리카 “무역 수호천사”, “도움의 손”인 것처럼 보인다. GDP 급성장과 경지 부족으로 인한 중국의 천연자원과 농산물 욕구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에게 희소식처럼 들린다. 2005년 중국은 대 라틴아메리카 교역 및 투자 규모가 500억불을 육박하면서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실정이다.

제 2 장에서는 블라즈케즈, 로드리게즈, 산티소가 중국의 수출입 구조를 토대로 중국 교역이 여타 세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1998-2004년 중국이 34개 경제국가에 미친 영향을 비교토록 620개 품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미국시장에서의 교역경쟁력을 2개 지수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 15개국이 라틴아메리카에 속한다.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지수를 보이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칠레는 중국과의 교역경쟁에 따른 손해가 가장 덜한 경우다.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는 중간 입장이며 미국에서 중국 경쟁에 가장 노출된 국가는 중미국가와 멕시코다.

사냐야 달, 존 웨이스는 제 3 장에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수출 실적,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드러낸 특화 양상, 주요 시장을 각각 분석, 비교하여 유사한 결론을 도출시킨다.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국가 교역구조는 중국 교역구조와 경쟁 관계보다는 보완관계인 경우가 보통이라는 지적이다. 달, 웨이스는 중국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전례 없는 무역기회를 갖지만 이러한 자원위주 품목에 대한 큰 의존성이 기술 향상과 다양화를 지체하는 만큼 장기 경제발전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기 저자와 비슷한 결론에 이른다. 제 4 장에서 로페즈-코르도바 및 공동저자가 지적하듯 런민비 잠재 평가절상은 미국시장에서 라틴아메리카 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 사항이 주요 구조적 문제로 남을 듯하다.

중국의 부상은 라틴아메리카를 깨우는 신호다. 멕시코 등 일부국은 경쟁력 시험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중기에는 노동비용이 경쟁우위를 더 이상 보장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 도전에 맞서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특히 기반시설 부문에서의 개혁일정을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다.

멕시코, 중미가 이용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 자산은 미국과 근접한 지리 여건이다. 따라서 이에 이르는 최상의 방법은 거래비, 교통비를 감축토록 도로, 항구, 철도, 공항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나머지 라틴아메리카국가에서 중국은 무역 천사로 남을 듯하다. 그리 놀랍지 않게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은 낮은 경쟁수준에 맞서는 입장이며 이러한 여건은 중국이 당해 원자재 순수입국일 경우에만 유효하다. 2003년 중국의 니켈 수입은 2배, 구리 수입은 15% 늘었고 석유는 30%, 대두는 70% 증가했다. 중국은 구리, 아연, 백금, 강철에서 세계 최대소비국이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 엄청난 수출증대를 목격하고 있으며 또한 원자재특유 수출품 부문에서 중국의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능력이 있어 세계수출량에서 중남미의 대두, 구리는 각각 47%, 40%를 차지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대 중국 수출규모는 엄청난 수적 증가를 보았다. 2000-2003년 브라질 수출 증가율은 5배, 아르헨티나 360%, 칠레 240%였다. 제조 부문의 세계 무역국인 멕시코조차 동 시기에 대 중국 수출이 10배 늘었다.

중국은 브라질의 2위 수출국이면서 최고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브라질은 대 중국 수출의 75%가 5개 품목에 집중된 상태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경우, 대두가

중국에 수출되는 주요 품목이고 칠레, 페루는 대 중국 수출품의 대부분이 구리 같은 단일 품목에 집중된다.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가 비록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겐 좋은 소식이다. 2000-2005 년 중국은 세계석유수요 증가분의 거의 40%를 차지했다. 중국의 석유 욕구 증대는 유가 상승과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콜롬비아 같은 석유수출국의 무역 흑자 활성화를 가져왔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구리수입 급증과 함께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칠레, 페루 경제가 활성화되어 2004년, 2005년 이들 국가의 무역흑자는 사상 최고 수준을 이루었다.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것만은 아니다. 향후 10년 간 중국은 자본 흐름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도움의 손을 내밀게 될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와 경쟁하는 것 같지는 않는다. 지난 몇년 간 중국이 유치시킨 FDI 규모는 라틴아메리카를 모두 합한 수준에 맞먹긴 하지만 이 투자 유치가 라틴아메리카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제 5장에서 알리시아가르시아-헤레로, 다니엘 산타바르바라가 지적하듯, 조사대상 기간인 1984-2001년 동안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의 FDI 유입을 대체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중국이 더 최근 기간인 1995-2001년 동안 각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중국의 FDI 유입이 멕시코,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일부국에게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황이 약간 달라진다.

사실 FDI 확보에서 라틴아메리카는 중국의 경쟁력 강화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중국의 이해관계를 유도하는 데 더 유리한 입장일 수 있다. 역내 보유한 풍부한 원자재는 식품·에너지 수입안정으로 부족난을 막으려는 중국의 요구 및 전략과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한다. 중국 투자는 농업관련 및 원자재관련 산업뿐 아니라 기반시설, 도로, 항구 부문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으며 또 이루어질 것이다.

2003년 1년간의 중국 대외투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중국은 전세계 FDI 의 1/3 을 라틴아메리카에 유치했다. 이듬해 중국은 FDI 의 거의 절반을 라틴아메리카에 유치했으며 2005년에는 16%를 유치, 해외투자규모는 70 억불로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식품, 원자재 공급안정이 요구되면서 전략적 국제 파트너를 상대로 한 FDI 흐름이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은 멕시코에 이미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철도 건설이나 농업관련 사업에도 관심을 늘리는 실정이다. 중국업체가 해외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은 이미 라틴아메리카에 일부 있는데 예로 브라질의 철강산업을 들 수 있다. 2004년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시노펙은 브라질 남부와 북동지역을 잇는 송유관 건설에 페트로브라스사와 합작으로 10 억불을 투자했다. 최근 중국이 체결한 사업에는 상해의 유명한 바오산강철사를 위해 세계 최대 광산업체에 속하는 브라질 CVRD 과 체결한 철광석 선박사업이 있다. 2005년 칠레의 대형 구리업체인 코델코는 중국 민메탈과 역사적인 무역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업체만이 라틴아메리카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로 브라질 업체 또한 중국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 가운데 항공기 제작회사인 엠브라에르, 브라질과 남미의 최대 버스생산업체인 마르코폴로 등이 있다. 중국에 활동 중인 브라질 업체는 15 개에 불과한 반면 캐나다 업체는 이미 4000 개나 된다.

라틴아메리카는 분명 중국과 아시아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다(산티소, 2005a). 이것이 바로 중요한 변화사항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가 아니라 3 개의 주요 세계성장동인으로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 80년대까지 이 지역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미국이었고 90년대에는 유럽투자 활성화가 2 번째 성장동인 역할을 했다. 새로운 세기와 10년을 맞이한 현실적에서는 중국, 특히 아시아의 부상이 라틴아메리카의 3 번째 성장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의 원자재 수요가 라틴아메리카에게 유일한 역사적 기회를 제공하긴 하지만 당해지역은 이러한 기회의 물결을 타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 기회의 물결로 이익을 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이 기회요인을 활용할 방법에 편중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원자재 구석으로만 몰아붙여지는 위험이 없게 하면서 세계생산 가치사슬에 계속 머무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상의 주요 쟁점사안일 것이다.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교역적, 재정적 영향 외에도 “인지 영향”이라고 칭할 수 있는 보다 미묘한 효과를 가져오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실로 중국은 일종의 성공신화 상징으로써 개도국, 선진국의 개발 경제학자, 정책결정자, 기업운영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성공신화가 보다 괄목할 만한 이유는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생산구조조정,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결정자들이 국가가 추진한 시장친화적 정책을 도입시키는 등 놀라운 경제적 실용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요소 짜맞춤은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국의 과거 경험에서 비슷한 형태를 보였으나 중국은 유일한 경우로 공산당 자체가 이 짜맞춤 작업을 추진시켰다는 점이 특출한 사항이다.

오늘날 실용주의 정치경제는 수년 전에 비해 보다 지배적인 분위기다. 중국은 어떤 거시적 패러다임이나 교과적 모델을 참조하는 일 없이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추진해 나아갔다. 칠레의 시카고 보이 또는 (위기 국가를 도우는) *money doctors* 그 누구도 베이징에 도착하여 해야 할 사항과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조언을 하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러한 실용주의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등 일부국에서 활용되고 있다(산티소, 2006). 물론 국가마다 경험이 달라지고 유일하지만 이 모든 경험사례들이 경제발전의 상자를 여는 만능 열쇠나 마술 주문이 없음을 결론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요소다.

© OECD 2007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